맹독삼과(猛毒三果) - I, II

(눅4:1-8)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3.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맹독삼과(猛毒三果) - I, II>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맹독성이 있는 3가지의 과일 중에서 첫 번째 과일과 두 번째 과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 본다는 얘기지요.
시대를 초월해서 의미를 갖는 동화들 중에, 잘 아시는 '백설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백설 공주가 의붓 엄마인 왕비가 내민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집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상을 좀 해 봐요.

백설 공주라는 이름이 어떻게 인제 나왔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의붓 엄마 왕비가 아니라, 생모 왕비가 살아 있을 때, 아직 백성공주를 낳기 전에 바느질

을 합니다.
겨울에 바느질을 하는데 그만 바늘에 손이 찔렸어요.
그래서 피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 그 성의 문틀을 흑단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흑단나무가 여러분, 새카만 나무인가 봐요.
서양에 체스 있지 않습니까? 체스 할 때, 하얀 말과 검은 말을 그 체스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검은 말, 새카만 말을 흑단나무로 만든답니다.
그 새카만 흑단나무로 창틀에 눈이 쌓였는데, 바늘에 찔려서 흘린 한 방울의 피가, 그 흑단나무 위에 쌓인 백설 위에 떨어집니다.
그때 왕비가 그 피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갖지요.
흑단나무처럼 까만 머릿결에, 백설처럼 하얀 피부에, 핏빛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 딸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대로 딸을 낳는데 진짜 흑단의 머릿결에 백설의 피부에 핏빛의 입술을 가진 아리따운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백설 공주가 그 마귀할멈 같은 왕비가 내미는 빨간 사과를 입에 무는 순간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지요.
그 백설 공주가 사과를 무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맹독사과 대신에 맹독삼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물면 안 되는 맹독삼과, 절대 백설 공주가 물면 안 되는 그 맹독사과 같은 맹독삼과, 3가지 과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 시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광야에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이 뭘 뜻하느냐?
이게 바로 그 옛날 에덴으로 돌아가서 매치를 시켜보자면, 선악과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담의 에덴에서는, 선악과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선악과나무의 역할이, 선악과를 따 먹게 되면 이제부터 빈 내 마음을 채워서 마음의 배를 불리고, 마음의 배가 부른 만족감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들을 찾는 기질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선악과나무는,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내 마음의 배를 채울 것을 찾으려는 기질이 생기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사건에서 보여 진 선악과는, 그런 기질에 의해서 인류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먹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믿는 과일들이 3가지가 나열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먹으면 내 배를 채울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찾으려는 기질이 생긴 것이고,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에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악과, 이 맹독성의 과일은 그러한 기질에 의해서 인류의 그 장구한 긴긴 역사를 통하여, '아! 이것이면 배를 채웠을 때 배가 부르고 기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표적인 세 개의 과일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사건이 어떤 사건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부터 예수님 위에 요셉으로 시작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을 지나 모세를 지나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노아의 시대를 지나서 아담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맨~ 끝에 양쪽 끝에 있는 두 분이, 예수님은 땅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전격적으로 만나기까지 그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바로 다음에 아담에서부터 틀어져 가지고, 예수님 바로 위에 요셉까지의 시간들이 다~ 에덴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갔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인 세례, 이 세례의 현장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그 에덴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 선악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일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세 번째 과일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3일 금식해 보면 압니다, 굶주림이라는 게, 이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육체가 음식을 요구하는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수 만 톤급의 배를 스크루가 돌리면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흡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루 앞으로 가면 잘못하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음식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굶은 자가 떡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욕구이고 너무나 절박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보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으로는 그 떡을 쥐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떡을 소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떡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 떡을 담는 거잖아요.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서 담는 겁니다, 마음으로 담는 건데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백설 공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이 백설 공주였을 거예요. 뭐가? 마음이 백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흑단 같은 머릿결 대신에, 하나님 이외의 이 피조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백설 같은 마음이 더욱더 돋보였을 것이에요.
백설 공주의 머릿결이 흑단 같았기 때문에 얼굴의 그 하얀 피부가 더 돋보였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죽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향하여 산 백설 같은 마음은 더욱더 하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얀 마음이 유지가 되려면,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백색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백색의 기쁨이.
그런데 아담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백설이 내린 뒤에 조금 지나면 그 밑에 있던 진흙탕이 막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상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이고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연합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음이 백설같이 죄가 없는 상태로, 흰 눈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양털처럼 흰 눈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 백설이 된 거에요.
우리가 다 백설 공주라는 얘깁니다.
이 백설 공주가 하나님을 향하여 피처럼 붉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흡입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었지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백설 같은 마음의 본분은 마귀가 내미는 붉은 사과를 입에 무는 백설 공주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이 몸이 40일을 굶어서 몸이 떡을 그렇게 강렬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 마음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육체가 느끼는 필요를 마음이 받아들이고 마음이 쫓아가고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 이게 바로 백설의 마음으로 진흙을 입에 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타나시면서, 누가의 눈에 비쳤던 그 에덴은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세례를 받을 때,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홍해', '붉은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비견돼서 얘기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붉은 피를 거치면서 우리 마음이 백설이 됐습니다.
백설 공주가 된 우리들이 마음이, 육체의 필요를 같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육체의 필요가 내 마음에서 움직이고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염려하고 마음이 소원하는, 목적이거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육체의 요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그게 식욕이던 성욕이던 아니면 내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욕망이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입는 것, 먹는 것, 좀 더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이 육체에 뿌리를 둔 필요를 따라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은,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라도, 이 몸에 떡이 필요한 것이라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은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극한의 상태이지요, 극한의 상태.
몸의 요구가 완전히 머리꼭대기까지 충~만 충만 충만해서, 완전히 머리꼭지가 열릴 만큼 강렬한 그 순간을 보여 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차도 마음이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 마음이 육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에덴이 상실될 것임을, 기쁨의 땅이 상실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도 몸이 떡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40일을 굶은 몸이 원하는 떡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필요와 요구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단지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갖지 말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 과일이,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돼요.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의 핵심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절을 하라 그랬다고 천하만국과 상관없이, 마귀에게 절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절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이 더 높아요, 마귀보다.

마귀가 주님을 보면 쩔쩔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 이거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조건을 내 세우니까 지금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 맥락에서, '만약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면 너에게 절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철칙이라 한다면,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얘기는,

‘천하만국과 권세 나 안 얻겠다, 내가 마음으로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마귀가 조건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또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긴다는 말을 한 것이고, 지금 핵심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마음으로 담을 것이냐 안 담을 것이냐가 핵심문제라는 얘깁니다, 누구에게 절하느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핵심문제가 아니라.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뭡니까?
앞에 첫 번째 이 맹독성의 과일과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맹독성의 과일은, 앞에서는 내 몸에 뿌리를 내린 요구를 내 마음이 따라가는 문제를 다룬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을 통해서 인간사회를 살아갈 때에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느껴지는 요구를 말해요, 사회적인 필요, 사회적인 욕구.
이 인간세상에서 일등하고 싶고, 인간세상에서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고 싶고, 인간세상에서 인간들의 눈에 비칠 때에, 내 모습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고 싶고, 내 속이야 어떨 값에 내 속이야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간에, 내 속에는 어떤 탐욕과 타락과 감추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이 인간들의 비친 내 모습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일등으로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에 서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맹독성의 과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인간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천하만국,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쥐고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게 되는 거지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일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광입니다.
일등이라는 게 뭐에요?
사람과 사람,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필요를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백설같이 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붉은 빛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입으로, 독 사과를 무는 거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사회에서 가족, 직장, 학교 뭐 교회라는 사회, 그 어디서 사람들에게서 돋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관계에서 앞서고 싶어 하는 이 모~든 욕망이 에덴을 괴멸 시켜버리는 독사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독사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백설 공주입니다.
우리 마음이 백설같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 백설에, 몸이 요구하는 요구들을 문다는 것은 백설이 진흙과 섞여버리는 것이고, 그 피같이 붉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뻐끔거리면서 갈급해 해야 될 입술로 도저히 입에 가까이 되서는 안 될 것들을 입으로 무는 것이고, 그 백설 같은 마음에 이 인간사회에서 인간들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을 한번 멋지게 꾸며 보겠다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또한 백설의 마음으로, 도저히 담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을 담는 것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사람을 무시해야 되느냐?
사람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사회에 등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백설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백설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수로 백설의 마음이 됩니까?
죽어라 하고 십자가를 잊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지 않는 시간이 긴 사람이 백설 공주로서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백설 공주가 된 자만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육체의 욕구를 마음이 따라가고, 사회적인 욕구를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은, 백설의 마음에 진흙을 담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욕구, 인간사회를 떠나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인간사회 속에서 인간사회를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사회 속에서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얻을 자리 얻게 하시고, 진행될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시켜 나가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 육체의 욕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회적인 욕구, 이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하루를 산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욕구를 내가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뭐 인간관계 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십자가만 마음에 붙들면서 직장 나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면 백설 공주입니다.
그 백설의 마음에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될 삼독, 그 중에 두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백설 공주가 되었습니다.
백설 공주가 된 우리의 마음이 결코 독 사과를 마음에 입으로 무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